

# 경제주평

- 내수 회복 모멘텀의 실증 속 수출 경기 회복력의 약화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3분기)

# 목 차

## ■ 내수 회복 모멘텀의 실종 속 수출 경기 회복력의 약화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3분기)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2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	12
4. 시사점 .....	16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02-2072-6235, juwon@hri.co.kr)

##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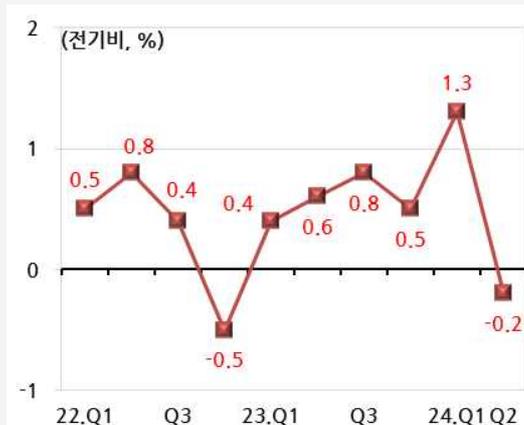
### □ 내수 회복 모멘텀의 실종 속 수출 경기 회복력의 약화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3분기)

#### ■ 개요

**(수출-내수의 경기 양극화 지속)** 한국 경제는 3분기에도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내수 경기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2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은 전기비  $\Delta 0.2\%$ 로 역성장의 모습을 보였으나, 1분기(1.3%)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구성 요소별로 보면 수출이 증가(전기비 1.2%)하였으나, 민간소비( $\Delta 0.2\%$ ), 건설투자( $\Delta 1.7\%$ ), 설비투자( $\Delta 1.2\%$ )의 내수가 모두 침체를 기록하면서 수출과 내수의 경기 양극화가 지속 중이다. 한편, 선행지수순환변동치의 개선세가 중단된 가운데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상 경기 저점은 여전히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7월 현재 98.4p로 6월의 99.0p보다 하락하였다. 특히,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23년 4월(98.6p)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7월에 들어 상승세를 멈추었다.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소비 침체 국면 진입)** 고금리, 고물가, 소득 정체 등의 구매력 여건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소비 부문의 침체가 지속 중이다. 재화 중심의 소비 지표인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월비 기준 6월 1.0%의 증가세에서 7월에  $\Delta 1.9\%$ 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도 7월에  $\Delta 2.1\%$ 를 기록하면서 3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항목별로 내구재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

가 모두 침체를 지속하였다.

**(비ICT 설비투자 확대)** 설비투자의 핵심 부문인 ICT 투자가 급감하고 비ICT 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7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23년 7월 대비) 18.5%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24년 6월 대비)로도 10.1% 증가하였다. 다만, 그동안 설비투자를 주도했던 ICT투자가 7월에 들어 전년동월 기준으로  $\Delta 12.6\%$ 의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비ICT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투자 반등을 견인하였다.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전년동월대비 7월 12.7%)과 자본재수입액증가율(7월 18.4%)이 모두 증가하면서 설비투자의 회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황이다.

**(건설기성 침체 속 건설수주 반등)**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감소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반등하였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공공 부문이 증가(전년동월대비 7월 12.0%)하였으나 민간 부문이 감소(7월  $\Delta 6.1\%$ )하면서 7월  $\Delta 3.4\%$ 로 5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한편,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민간 부문(7월 29.6%)과 공공 부문 (7월 26.2%)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7월에 28.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반도체 수출 회복 강화, 미국 시장의 호조, 전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 등으로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중이다. 8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1.4%를 기록하면서 '23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7월(13.9%)보다는 증가율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對미국 수출이 호조를 지속 중인 가운데 對중국 수출이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전년동월비 38.8%), 무선통신기기(50.4%), 컴퓨터(183.2%), 선박(80.0%) 등이 호조를 보였으나, 자동차( $\Delta 4.3\%$ ), 이차전지( $\Delta 4.5\%$ ), 철강제품( $\Delta 1.7\%$ )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수출 업종별 경기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되었던 자동차 수출이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향후 수출 경기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12대 주력 품목 중 IT(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와 선박을 제외할 경우 8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약  $\Delta 0.6\%$ 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형상 고용시장 개선 속 질 좋은 일자리 축소)** 실업률 개선과 일자리 증가세가 유지되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제조업 및 건설업, 청년층의 고용창출력이 감소하는 점이 우려된다. 7월 실업률은 2.5%로 전년동월('23년 7월 2.7%)보다 개선되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도 '23년 7월 38.8만 명에서 '24년 7월 38.1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7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17.2만 명으로 6월의 9.6만 명보다 증가하면서 외형상 경제의 고용창출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산업별로 보면 7월 중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전년동월비  $\Delta$

1.1만 명)과 건설업(△8.1만 명)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연령별로는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계층이 주도(전년동월비 27.8만 명)하는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축소(△14.9만 명)되는 점은 우려스럽다.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속 수요측 인플레이션 요인 안정)** 고유가,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내수 경기 부진으로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7월 중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모두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4월에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확대(7월 전년동월대비 9.8%) 중이다. 또한, 생산자물가도 석탄 및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공업제품이 크게 올라 6월 전년동월대비 2.5%에서 7월에 2.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 2%대에 진입한 이후, 이번 8월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전년동월대비 2.0%를 기록하였다. 이는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았음에도 내수 침체에 따른 수요측 물가 하락 압력이 낮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민간주체의 심리 악화)** 최근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미래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가계 심리와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가계의 현재 경기 판단이나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CSI는 올해 들어 반등하다가 최근에는 개선세가 멈추었다.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8월 73p로 7월(77p)보다 하락하였다. 나아가 미래 경기상황에 대한 가계의 시각을 보여주는 향후경기전망 CSI도 7월 84p에서 8월에 81p로 하락하면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다. 한편, 한경협 BSI와 한은 CBSI 등의 기업심리지수는 최근 대내외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9월에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한경협 BSI(전망)는 8월 97.1p에서 9월에 92.9p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한은 CBSI(Composite Business Sentiment Index, 전산업)도 같은 기간 93.4p에서 92.7p로 역시 하락하였다.

##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7월 전산업 생산은 1년 전과 비교할 때는 산업 생산이 확대되었으나, 전월(6월)을 기준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부진하여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 재고·출하 사이클상 여전히 수요 회복 중인 것으로 보이나, 가동률이 하락하고 출하증가율이 연초 대비 미약한 수준으로 향후 제조업 경기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수출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의 확장세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평균가동률이 크게 하락(6월 73.8% → 7월 71.4%)하면서 산업 경기의 활력이 다소 약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재고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7월 출하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1.8%에 그쳐 6월의 △3.0%

의 감소 폭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업종 경기의 불확실성을 시사한다. **(서비스업) 재화와 서비스 소비 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전월비 서비스업 생산은 6월 0.3%에서 7월에 0.7%로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전년동월비로도 생산 증가율이 6월 0.5%에서 7월에 2.2%로 높아졌다. **(건설업)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7월 중 토목 부문과 건축 부문이 모두 반등하였다.** 다만, 건설수주(전년동월비) 반등은 건축 부문(7.7%)도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토목 부문(83.5%)이 크게 늘면서 전체 건설 경기를 주도하였다.

■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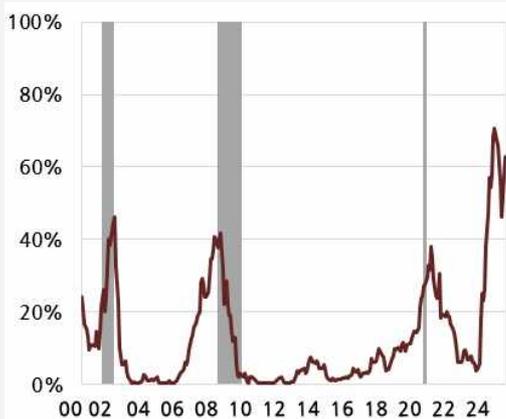
(1) 경기 방향성 결정 리스크 요인

향후 한국 경제는 ① 미국 경제의 경착륙 vs 연착륙, ②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 조정 강도, ③ 국내 수출-내수 간 경기 양극화 등의 리스크 요인에 따라 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① 미국 경제의 경착륙 vs 연착륙

미국 경제의 경착륙(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우리 수출 섹터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대(對)미국 수출 경기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근 실물 지표들의 추이를 볼 때 연착륙의 가능성이 경착륙 가능성보다 다소 높다고 평가된다. 최근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미국 경제의 경기침체 확률은 현재 60%로, 이는 약 40년 만에 최고치일 정도로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IB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방향성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하락하다가 2025년에 들어 반등하는 연착륙 시나리오를 예측한다.

< 미국 경기침체확률 추이 >



자료: New York Fed.  
 주) 1) 10년물-3개월물 국채 스프레드 이용  
 2) 음영 부분은 NBER 침체 기간.

< 미국 분기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Bloomberg.  
 주) 1) IB 60개 사 평균  
 2) 최대 및 최소 상하위 10개사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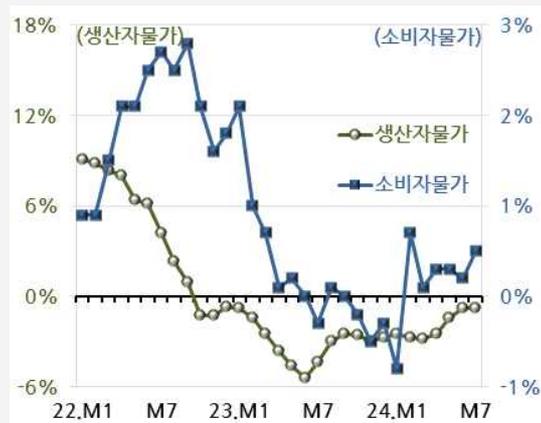
## ②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 강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경제의 불황 탈출 여부에 따라 향후 수출 경기의 회복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전체 수출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7%(중국 본토 19.7%, 홍콩 4.0%)로 중국은 수출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중국 경제의 거시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나, 내수 부문을 견인하는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7월 현재 중국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Delta 5.3\%$ 로 약 2년 동안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주택시장(건설업 포함)의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는 분석 기관에 따라서 20~4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 중이다.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5%로 6월의 0.2%보다 증가하였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여 동안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 < 중국 주택가격지수 증가율 추이 >      < 중국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



자료: 國家統計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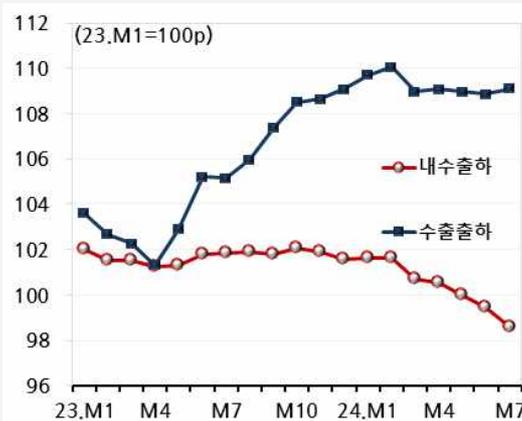
자료: 國家統計局.  
주: 전년동월비 기준.

## ③ 국내 수출-내수 간 경기 양극화

수출 경기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내수 시장의 수요가 부진한 모습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광공업의 수출 출하는 개선되는 추세가 확연하나, 내수 시장에 대한 출하는 악화되는 모습을 지속 중이다. 2023년 1월을 100p로 가정하고 6개월 이동평균으로 평활화를 하였을 때, 광공업 수출출하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내수 출하는 하락세를 지속하면

서 특히 2024년에 들어 출하 감소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기업들은 수출 시장보다 내수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의 「2024년 8월 기업경기조사」의 내용 중 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을 보면, '내수 부진'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순서이다. 특히, 1년 전인 2023년 8월과 비교해 볼 때, 내수 부진을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제조업 16.8% → 24.3%, 비제조업 15.6% → 19.6%).

< 광공업 내수 및 수출 출하지수 추이 >



< 한은 기업경기조사 상의 경영애로사항 비중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통계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현 경기 판단)** 2024년 3분기 현재 내수 불황 속 수출 회복에 기대어 미약한 성장력을 유지하는 불안한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저효과(base effect)를 제외할 경우 완전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고금리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면서, 실물 경기의 활력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경기 전망)**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 환경의 변화,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완만한 회복 국면이 나타나거나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국면에 진입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의 갈림길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U'자형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는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강화되고, 늦었지만 10월 중 금리 인하가 결정될 경우 소비 및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가 완만한 회복 국면을 보이는 경로이다. 다음으로 'L'자형 복합 불황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되거나 금리 인하 폭이 미약할 경우, 수출과 내수가 동시 부진에 빠져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로를 의미한다.

## &lt; 향후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gt;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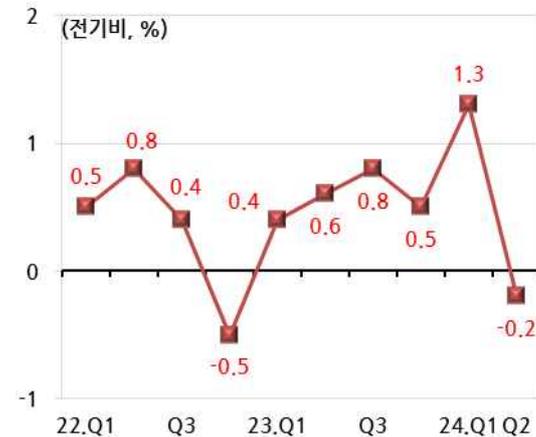
### ■ 시사점

한국 경제가 수출-내수의 경기 양극화를 극복하고 안정적 경제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수 부문의 경기 안전판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의 전환과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통화정책이 이미 타이밍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가 4분기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 공백기 동안의 경제 심리 안정을 위한 '브릿지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미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넷째**, 고용 시장의 안정과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건설업의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최근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중국 시장의 회복 지연 등의 수출 환경의 악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수출 경기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

## 1. 개요

- (수출과 내수의 경기 양극화 지속) 한국 경제는 3분기에도 현재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내수 경기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 국면이 지속 중
- 2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은 전기비  $\Delta 0.2\%$ 로 역성장의 모습을 보였으나, 1분기(1.3%)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동기대비로는 2.3%를 기록
  - 2분기 GDP 구성 요소별로 보면 수출이 증가(전기비 1.2%)하였으나, 민간소비( $\Delta 0.2\%$ ), 건설투자( $\Delta 1.7\%$ ), 설비투자( $\Delta 1.2\%$ )의 내수가 모두 침체를 기록
- 한편, 선행지수순환변동치의 개선세가 중단되는 가운데,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지속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7월 현재 98.4p로 '24년 2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경기 악화를 시사함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4월 99.7p, 5월 99.1p, 6월 99.0p, 7월 98.4p
  - 특히,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23년 4월(98.6p)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 상승하였으나, 7월에 들어 상승세를 멈춤
    -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4월 100.5p, 5월 100.5p, 6월 100.6p, 7월 100.6p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 (소비 침체 국면 진입) 고금리, 고물가, 소득 정체 등의 구매력 여건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소비 부문의 침체가 지속

- 재화 중심의 소비 지표인 7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  
 ·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율은 6월 1.0%의 증가세에서 7월에  $\Delta 1.9\%$ 의 감소세로 전환됨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QoQ, MoM): 1분기  $\Delta 0.5\%$ , 2분기  $\Delta 0.8\%$ , 4월  $\Delta 0.6\%$ , 5월  $\Delta 0.2\%$ , 6월 1.0%, 7월  $\Delta 1.9\%$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분기  $\Delta 2.1\%$ , 2분기  $\Delta 2.9\%$ , 4월  $\Delta 2.0\%$ , 5월  $\Delta 2.8\%$ , 6월  $\Delta 3.6\%$ , 7월  $\Delta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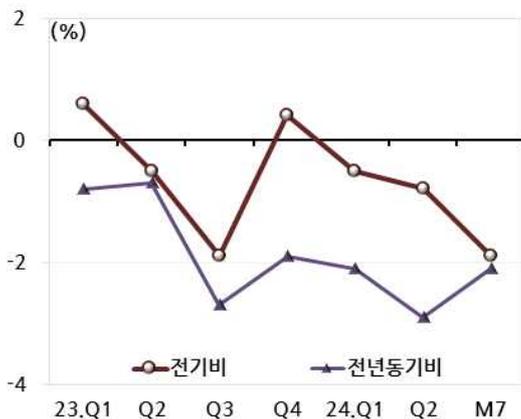
- 소비 항목별로 내구재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가 모두 침체를 지속

· 내구재 소비는 승용차, 가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이 증가함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분기  $\Delta 2.6\%$ , 2분기  $\Delta 5.1\%$ , 4월  $\Delta 2.1\%$ , 5월  $\Delta 4.5\%$ , 6월  $\Delta 8.3\%$ , 7월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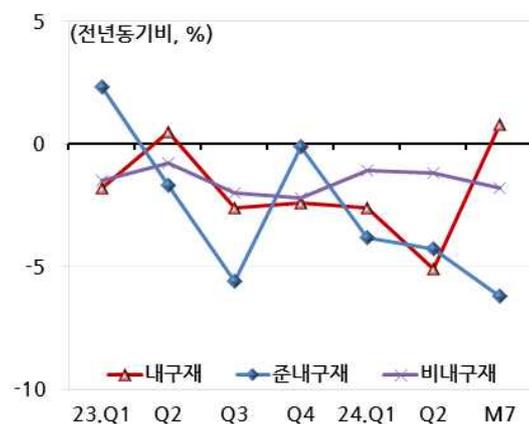
※ 비내구재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분기  $\Delta 1.1\%$ , 2분기  $\Delta 1.2\%$ , 4월  $\Delta 1.4\%$ , 5월  $\Delta 1.2\%$ , 6월  $\Delta 1.1\%$ , 7월  $\Delta 1.8\%$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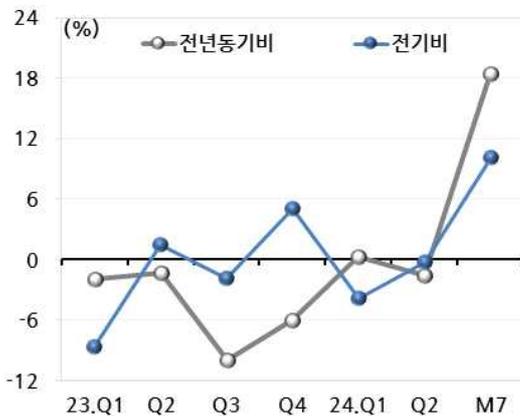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비ICT 설비투자 확대) 설비투자의 핵심 부문인 ICT 투자가 급감하고 비ICT 투자가 크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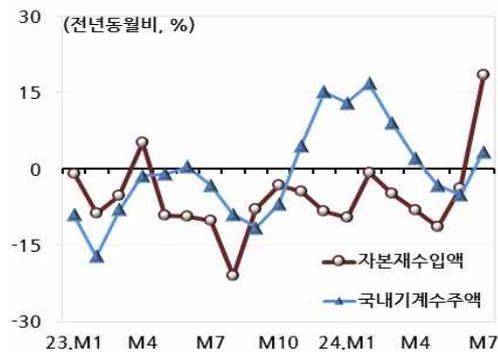
- 7월 설비투자는 비ICT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비 및 전월비 기준 모두 증가
  - 7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23년 7월 대비) 18.5%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24년 6월 대비)로도 10.1% 증가함
    -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1분기 0.3%, 2분기 △1.5%, 4월 0.4%, 5월 △1.4%, 6월 △3.3%, 7월 18.5%
  - 다만, 그동안 설비투자를 주도했던 ICT투자가 7월에 들어 전년동월 기준으로 △12.6%의 감소세로 전환됨
    - ※ ICT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1분기 0.4%, 2분기 6.1%, 4월 6.4%, 5월 △3.1%, 6월 14.4%, 7월 △12.6%
-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과 자본재수입액증가율이 모두 증가하면서 설비투자의 반등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황
  - 자본재수입액은 1년여의 감소세를 끝내고 7월에 들어 증가세로 반전됨
    -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4월 △8.2%, 5월 △11.4%, 6월 △3.9%, 7월 18.4%
  - 국내기계수주는 6월 감소세에서 7월에 증가세로 전환됨
    -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sup>1)</sup>: 4월 △12.7%, 5월 5.4%, 6월 △7.9%, 7월 12.7%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1) 국내기계수주액(선박·선박용내연기관제외)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

○ (건설기성 침체 속 건설수주 반등)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감소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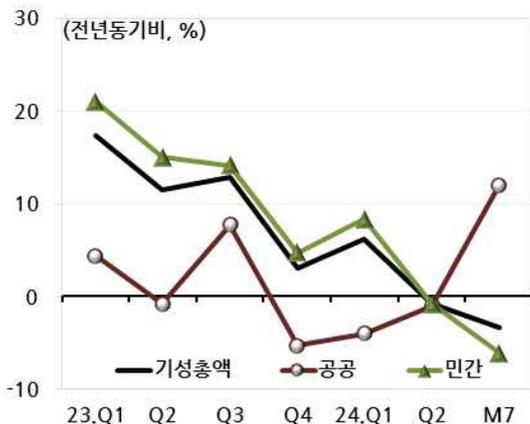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공공 부문이 증가하였으나 민간 부문이 감소세를 지속

- 7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전년동월비)은 △3.4%로 5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함
  - ※ 건설기성 증가율(YoY): 1분기 6.2%, 2분기 △0.8%, 4월 2.5%, 5월 △1.1%, 6월 △3.3%, 7월 △3.4%
-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반등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은 감소세를 지속함
  -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1분기 △4.0%, 2분기 △1.0%, 4월 △1.4%, 5월 △4.1%, 6월 1.7%, 7월 12.0%
  -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1분기 8.3%, 2분기 △0.8%, 4월 3.4%, 5월 △0.4%, 6월 △5.0%, 7월 △6.1%

- 한편,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7월에 들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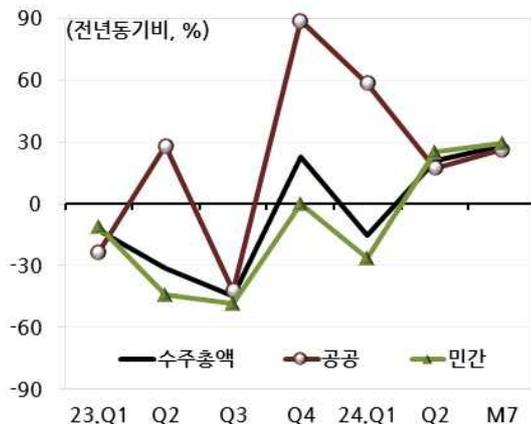
- 7월 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8.4%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 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15.6%, 2분기 20.9%, 4월 51.2%, 5월 △16.6%, 6월 36.9%, 7월 28.4%
  -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58.4%, 2분기 17.3%, 4월 23.8%, 5월 △25.4%, 6월 46.2%, 7월 26.2%
  -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26.3%, 2분기 25.0%, 4월 64.7%, 5월 △10.1%, 6월 33.5%, 7월 29.6%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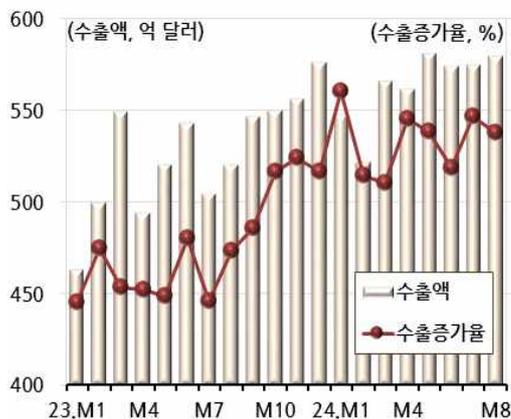
<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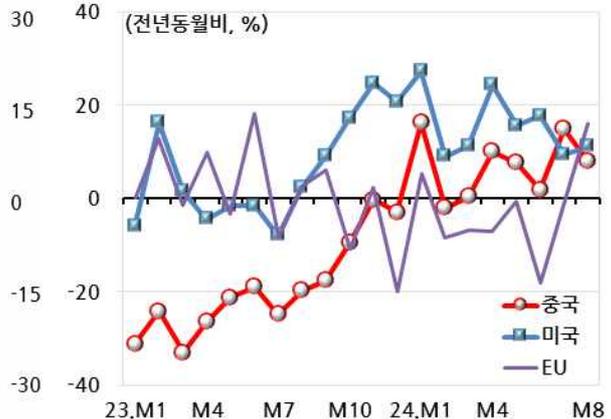
-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반도체 수출 회복 강화, 미국 시장의 호조,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 8월 수출증가율은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23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8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1.4%로 7월(13.9%)보다는 증가율이 다소 낮아짐
    - ※ 수출액 증가율: 2월 4.4%, 3월 3.1%, 4월 13.6%, 5월 11.5%, 6월 5.6%, 7월 13.9%. 8월 11.4%
  - 한편, 12대 주력 품목 중 IT(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와 선박을 제외할 경우 8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Delta 0.6\%$ 로 감소함
- 지역별로는 對미국 수출이 호조를 지속 중인 가운데 對중국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경기 양극화가 뚜렷한 모습
  - 對중국 수출은 3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 對중국 수출증가율: 3월 0.4%, 4월 10.0%, 5월 7.6%, 6월 1.9%, 7월 14.9%. 8월 7.9%
  -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전년동월비 38.8%), 무선통신기기(50.4%), 컴퓨터(183.2%), 선박(80.0%) 등이 호조를 보였으나, 자동차( $\Delta 4.3\%$ ), 이차전지( $\Delta 4.5\%$ ), 철강제품( $\Delta 1.7\%$ )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특히, 그동안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되었던 자동차 수출이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은 불안 요인으로 평가됨

< 월별 수출증가율 >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시장별 수출증가율 >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외형상 고용시장 개선 속 질 좋은 일자리 축소) 전반적인 실업률 개선과 일자리 증가는 긍정적으로 생각되나, 산업별로 제조업 및 건설업, 연령계층별로 청년층의 고용창출력이 하락하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평가

- 7월 실업률은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구직단념자도 감소세로 전환

· 7월 실업률은 2.5%로 전년동월(‘23년 7월 2.7%)보다 개선되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sup>2)</sup>도 ‘23년 7월 38.8만 명에서 ‘24년 7월 38.1만 명으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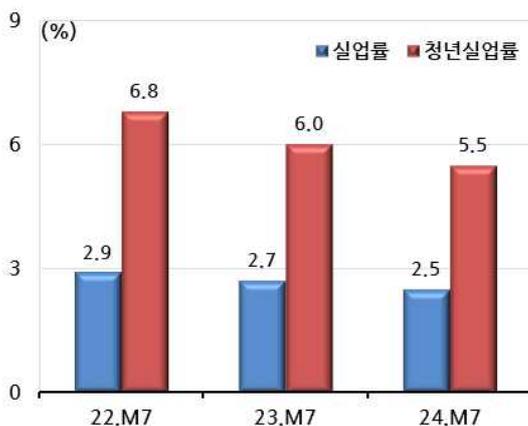
- 7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17.2만 명으로 6월의 9.6만 명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비스업과 60세 이상 연령층이 주도

· 7월 중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17.2만 명으로 6월(9.6만 명)보다 상승함  
 ※ 취업자 증감(YoY): 3월 17.3만 명, 4월 26.1만 명, 5월 8.0만 명, 6월 9.6만 명, 7월 17.2만 명

· 7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제조업 △1.1만 명, 건설업 △8.1만 명, 서비스업 29.6만 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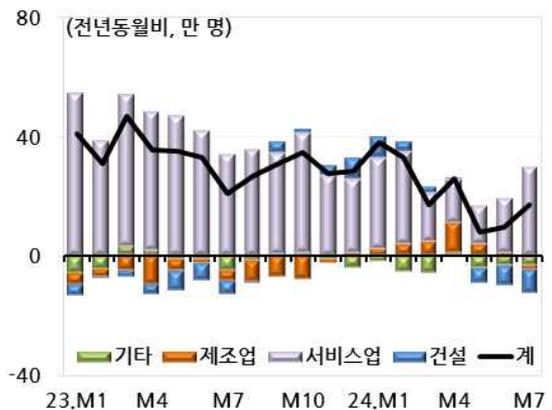
· 다만, 7월 취업자수 증가의 대부분은 60세 이상 연령층이 주도(전년동월비 27.8만 명)하고 있으며, 청년층 일자리는 축소됨(15~29세 △14.9만 명)

< 7월 기준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별<sup>3)</sup>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2)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중 구직단념자는 취업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정한 사유로 이전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

3) 기타는 광업, 유틸리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합계.

○ (한은 목표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도달) 고유가,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였으나, 내수 침체로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락

- 7월 중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모두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

·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4월에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됨

※ 수입물가상승률(YoY): 3월  $\Delta$ 0.5%, 4월 2.9%, 5월 4.7%, 6월 9.6%, 7월 9.8%

·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석탄 및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공업제품이 크게 올라 6월 전년동월대비 2.5%에서 7월에 2.6%로 증가함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3월 1.5%, 4월 1.9%, 5월 2.3%, 6월 2.5%, 7월 2.6%

-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한은 물가안정 목표치인 전년동월대비 2.0%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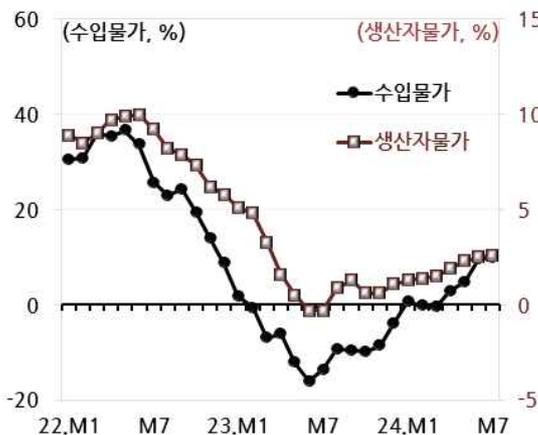
·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산물(전년동월대비 3.6%) 및 전기·수도·가스(전년동월대비 3.6%) 상승 폭이 컸으나,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률 둔화(전년동월대비 1.4%)로 2.0%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4월 2.9%, 5월 2.7%, 6월 2.4%, 7월 2.6%, 8월 2.0%

· 또한 일시적 변동 요인을 제외한 8월 근원물가상승률도 2.1%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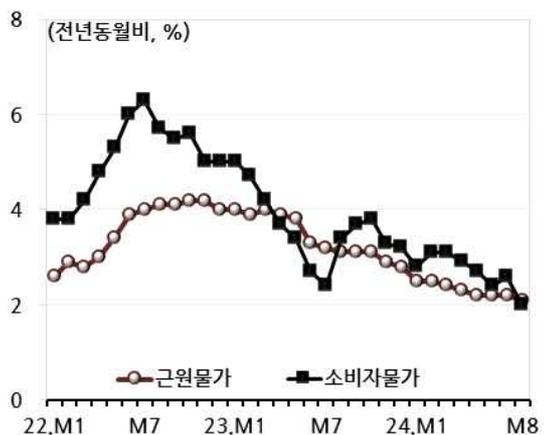
※ 근원물가상승률(YoY): 4월 2.3%, 5월 2.2%, 6월 2.2%, 7월 2.2%, 8월 2.1%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동월비 기준.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



자료: 통계청.  
주: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기준.

○ (민간주체의 심리 악화) 최근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미래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가계 심리와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

- 가계의 현재 경기 판단이나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CSI는 '24년에 들어 반등하다가 최근에는 개선세가 미약한 모습

·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8월 73p로 7월(77p)보다 하락

※ 현재경기판단 CSI: 4월 68p, 5월 67p, 6월 71p, 7월 77p, 8월 73p

· 또한, 향후경기전망 CSI도 7월 84p에서 8월에 81p로 하락하면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긍정적 관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향후경기전망 CSI: 4월 81p, 5월 79p, 6월 80p, 7월 84p, 8월 81p

- 한경협 BSI와 한은 CBSI 등의 기업심리지수<sup>4)</sup>는 최근 대내외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9월에 들어 큰 폭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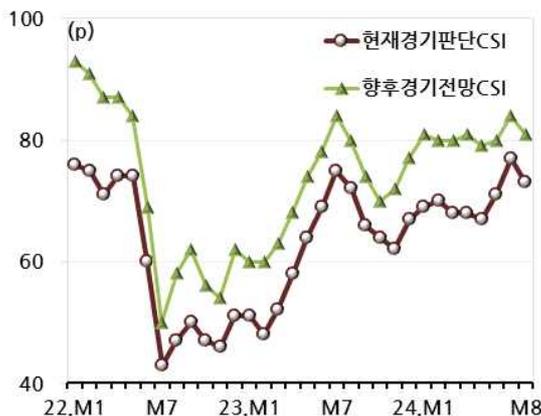
· 한경협 BSI(전망)는 8월 97.1p에서 9월에 92.9p로 크게 하락함

※ 한경협 BSI(전망): 4월 98.6p, 5월 94.9p, 6월 95.5p, 7월 96.8p, 8월 97.1p, 9월 92.9p

· 또한, 한은 9월 CBSI(전산업)도 92.7p로 8월(93.4p)에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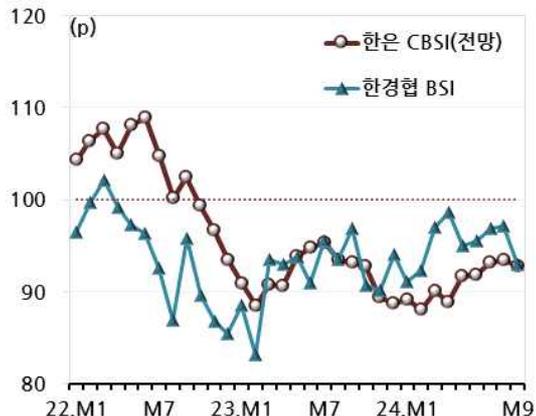
※ 한은 CBSI(전산업): 4월 88.8p, 5월 91.7p, 6월 91.8p, 7월 93.1p, 8월 93.4p, 9월 92.7p

<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한국은행, 한국경제인협회.

4) 한경협 BSI(600대 기업 대상)는 대기업의 시각을, 한은 CBSI(약 3,000여 개 기업 대상)는 중소기업의 시각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2) 산업별 경기 동향

○ (전산업) 7월 전산업 생산은 1년 전과 비교할 때는 산업 생산이 확대되었으나, 전월(6월)을 기준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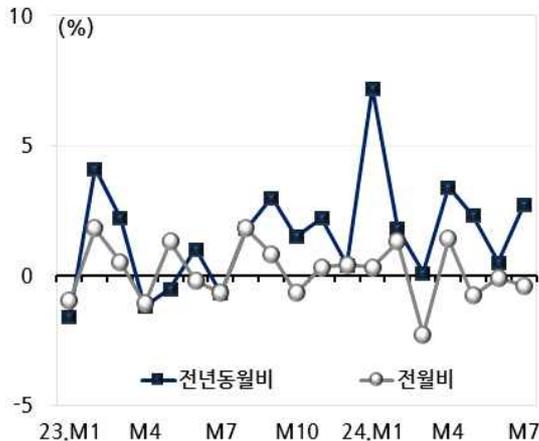
- 7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비는 증가세를 전월비로는 감소세를 기록  
 ·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6월 0.5%에서 7월에 2.7%로 높아짐

- ※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YoY): 4월 3.4%, 5월 2.3%, 6월 0.5%, 7월 2.7%
- 그러나 전월비 기준으로는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MoM): 4월 1.4%, 5월  $\Delta$ 0.8%, 6월  $\Delta$ 0.1%, 7월  $\Delta$ 0.4%

- 7월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의 생산 증가세가 1년 전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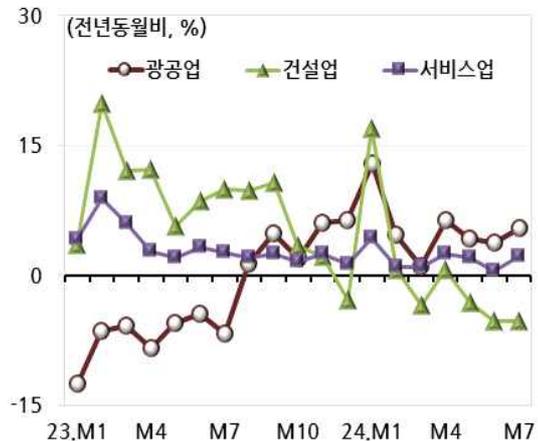
- 수출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증가율은 6월 전년동월비 3.8%에서 7월에 5.5%로 증가 폭이 확대됨
- ※ 광공업 생산증가율(YoY): 4월 6.4%, 5월 4.2%, 6월 3.8%, 7월 5.5%
- 전년동월비 7월 건설업 생산증가율은  $\Delta$ 5.3%이며, 서비스업과 공공행정은 각각 2.2% 및 2.6%를 기록함

<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제조업) 재고·출하 사이클상 여전히 수요 회복 중인 것으로 보이나, 가동률이 하락하고 출하증가율이 연초 대비 미약한 수준으로 향후 제조업 경기의 부침 가능성이 확대

- 수출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최근 제조업 생산의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평균가동률이 급감하는 모습

- 7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주력 업종인 자동차(△9.9%)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22.2%) 등에서 호조를 보여 5.9% 증가함
  - ※ 제조업 생산증가율(YoY): 4월 6.7%, 5월 4.4%, 6월 3.9%, 7월 5.9%
- 한편, 7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월보다 크게 낮아진 71.4%를 기록함
  - ※ 제조업 평균가동률: 4월 73.8%, 5월 72.9%, 6월 73.8%, 7월 71.4%

- 출하가 미약한 증가세를 기록 중이나 재고의 감소세가 지속 중인 것으로 볼 때, 제조업 경기의 회복 국면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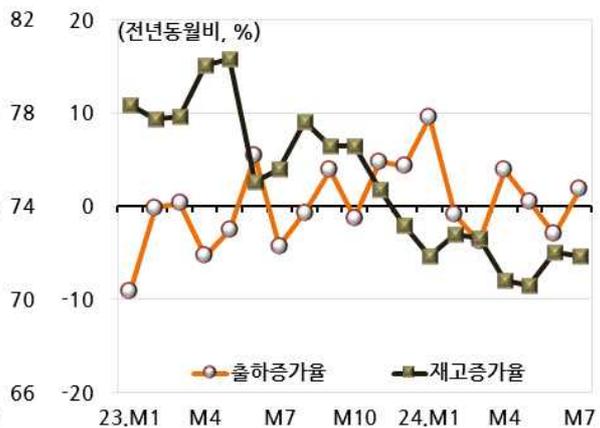
- 제조업 출하(전년동월대비)는 6월 일시적으로 전년동월대비 △3.0%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7월에 들어 1.8%의 증가세로 반전됨
  - ※ 출하증가율(YoY): 4월 3.9%, 5월 0.5%, 6월 △3.0%, 7월 1.8%
- 한편, 재고증가율은 '23년 12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임
  - ※ 재고증가율(YoY): 4월 △8.0%, 5월 △8.5%, 6월 △4.9%, 7월 △5.3%

< 제조업 생산증가율 및 가동률 >



자료: 통계청.  
주: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비.

< 제조업 재고 및 출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비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건설수주는 건축과 토목이 모두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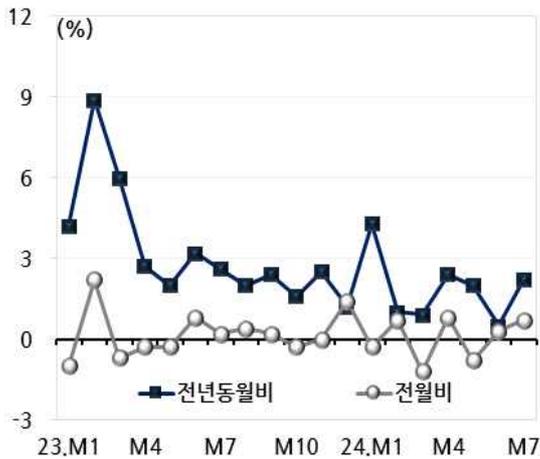
- (서비스업) 재화와 서비스 소비 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를 기록

- 전월비 서비스업 생산은 6월 0.3%에서 7월에 0.7%로 증가 폭이 확대됨
  -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YoY): 4월 2.4%, 5월 2.0%, 6월 0.5%, 7월 2.2%
  -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MoM): 4월 0.8%, 5월  $\Delta$ 0.8%, 6월 0.3%, 7월 0.7%
- 전월비 기준으로 7월 중 정보통신(4.5%), 운수·창고(3.1%) 등의 생산은 호조를 보였으나, 금융·보험( $\Delta$ 1.3%), 숙박·음식점( $\Delta$ 2.8%) 등은 위축되는 모습임

- (건설업)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7월 중 토목 부문과 건축 부문이 모두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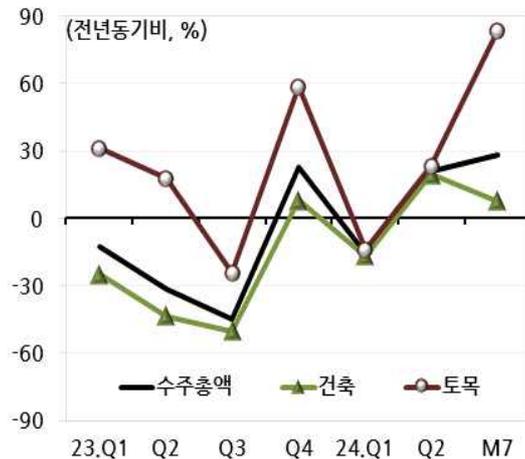
- 건설수주(전년동월비)는 7월에 들어 건축 부문(7.7%)이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토목 부문(83.5%)이 큰 폭으로 확대됨
  - ※ 토목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Delta$ 13.8%, 2분기 23.4%, 4월 70.8%, 5월  $\Delta$ 32.3%, 6월 62.0%, 7월 83.5%
  - ※ 건축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Delta$ 16.5%, 2분기 19.7%, 4월 44.6%, 5월  $\Delta$ 6.0%, 6월 24.4%, 7월 7.7%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공종별 건설수주액증가율 >



자료: 통계청.

###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 (1) 경기 방향성 결정 리스크 요인

- 향후 한국 경제는 ① 미국 경제의 경착륙 vs 연착륙, ②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 강도, ③ 국내 수출-내수 간 경기 양극화 등의 리스크 요인에 따라 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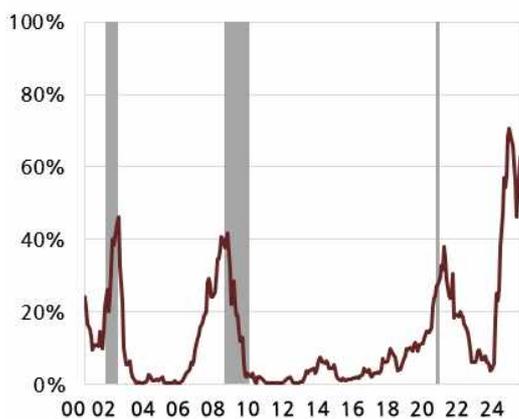
#### ① 미국 경제의 경착륙 vs 연착륙

- 미국 경제의 경착륙(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우리 수출 섹터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대(對)미국 수출 경기에 불확실성이 존재

-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근 실물 지표들의 추이를 볼 때 연착륙의 가능성이 경착륙 가능성보다 다소 높다고 평가

- 최근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미국 경제의 경기침체 확률은 현재 60%로, 이는 약 40년 만에 최고치일 정도로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대두됨
- 다만, IB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방향성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하락하다가 2025년에 들어 반등하는 연착륙 시나리오를 예측함

< 미국 경기침체확률 추이 >



자료: New York Fed.

- 주: 1) 10년물-3개월물 국채 스프레드를 이용
- 2) 음영 부분은 NBER 침체 기간.

< IB의 미국 분기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Bloomberg.

- 주: 1) IB 60개 사 평균
- 2) 최대 및 최소 상하위 10개사 평균.

②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 강도

○ 아직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경제의 불황 탈출 여부에 따라 향후 수출 경기의 회복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전체 수출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7%(중국 본토 19.7%, 홍콩 4.0%)로 중국은 수출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중국 경제의 거시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나, 내수 부문을 견인하는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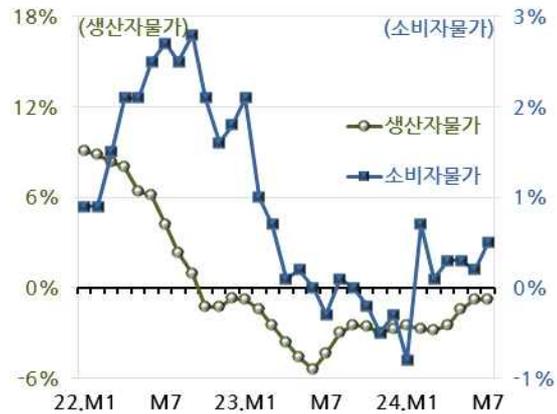
- 7월 현재 중국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Delta 4.9\%$ 로 약 2년 동안 감소세를 지속 중임
- 주택시장(건설업 포함)의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는 분석 기관에 따라서 20~4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임
- 중국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5%로 6월의 0.2%보다 증가하였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여 동안 감소세를 지속 중임

< 중국 주택가격지수 증가율 추이 >



자료: 國家統計局.

< 중국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



자료: 國家統計局.

주: 전년동월비기준.

③ 국내 수출-내수 간 경기 양극화

○ 수출 경기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내수 시장의 수요가 부진한 모습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가 양극화되는 모습

- 광공업의 수출 시장에 대한 출하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 출하는 지속적으로 하락

· 2023년 1월을 100p로 가정하고 6개월 이동평균으로 평활화를 하였을 때, 광공업 수출출하는 7월 현재 109.1p로 추세적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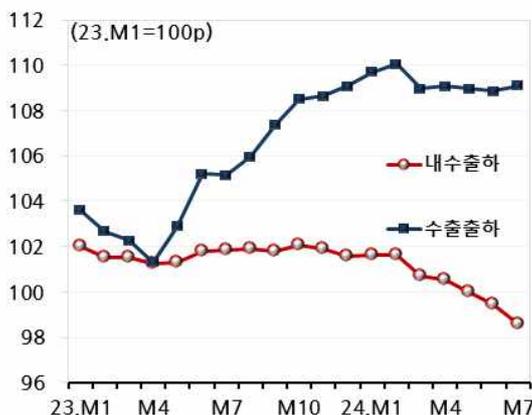
· 반면 내수 출하는 7월 현재 98.6p로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 들어 출하 감소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기업들은 수출 시장보다 내수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평가

· 한국은행의 「2024년 8월 기업경기조사」의 내용 중 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을 보면, '내수 부진'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순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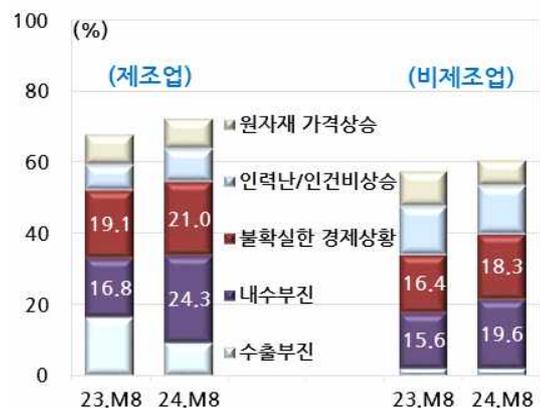
· 특히, 1년 전인 2023년 8월과 비교해 볼 때, 내수 부진을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제조업 16.8% → 24.3%, 비제조업 15.6% → 19.6%)

< 광공업 내수 및 수출 출하지수 추이5)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통계를 이용).

<한은 기업경기조사 상의 경영애로사항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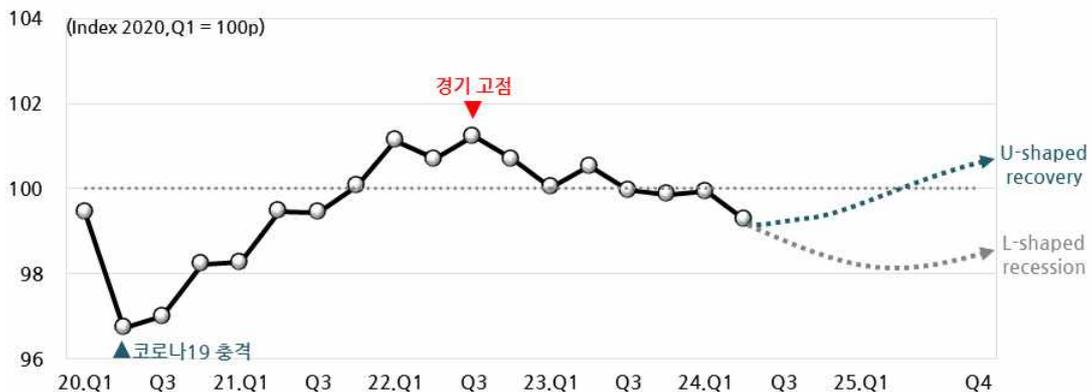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5) 통계청의 광공업출하지수에 대해 2023년 1월을 기준치로 조정한 6개월 이동평균값.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 (현 경기 판단) 2024년 3분기 현재 내수 불황 속 수출 회복에 기대어 미약한 성장력을 유지하는 불안한 국면에 위치
  -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저효과(base effect)를 제외할 경우 완전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고금리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면서, 실물 경기의 활력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경기 전망)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 환경의 변화,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완만한 회복 국면이 나타나거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의 갈림길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U자형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 :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강화되고, 늦었지만 10월 중 금리 인하가 결정될 경우 소비 및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가 완만한 회복 국면을 보이는 경로임
  - **L자형 복합 불황 시나리오** : 미국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되거나 금리 인하의 지연 또는 향후 인하 폭이 미약할 경우, 수출과 내수가 동시 부진에 빠져 경기 회복 국면이 상당 기간 나타나지 않는 경로임

< 향후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6) 최근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의 경제 환경의 부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지난 6월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1분기)에서 제시된 V자형 빠른 회복 시나리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외되고 대신 L자형 장기 침체 시나리오를 추가함.

#### 4. 시사점

첫째, 내수 부문의 경기 안전판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로의 전환과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 이미 미 FED의 금리 인하 이전에 BOC(Bank of Canada, 캐나다중앙은행),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 BOE(Bank of England, 영란은행) 등이 자국 상황에 맞추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함
- 이번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결정에 가계부채나 부동산시장 불안 등의 근거가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 크게 고려한다면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최소한 다음번 금리 결정에는 우리 기준금리에 대한 피벗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한편,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된 재정 여력 하에서 재정 지출의 타이밍을 확보하고 재정 지출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의 최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임

둘째, 통화정책이 이미 타이밍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가 4분기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 공백기 동안의 경제 심리 안정을 위한 '브릿지 전략'이 필요하다.

- 즉,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으로 소비 침체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정부의 미시적인 전방위적 소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올해 여름의 폭염에 따른 일부 농산물 가격의 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면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운용 등의 미시적 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위한 금융기관에 대한 독려와 인센티브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이번 추석과 10월 초의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해외 관광 수요가 국내 관광 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셋째, 미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노력 지속,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 확대, 기업인의 사기 진작 정책, 노사 관계 안정 등의 패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 또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에 대한 보조금 확대도 고려해야 할 것임

**넷째, 고용 시장의 안정과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건설업의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한다.**

-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에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지역 특성에 맞도록 차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여전히 우려되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자칫 전세난을 유발하거나 시

장 전반의 버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별 중장기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한편, 부동산 시장이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건설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실수요자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강화 등의 시장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PF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급격한 구조조정보다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시장을 관리하여 건설 경기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임

다섯째, 최근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중국 시장의 회복 지연 등의 수출 환경의 악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수출 경기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

- 반도체 등 ICT 제품의 수출 호조에 가려진 나머지 업종의 미약한 수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도 통상 당국과 협·단체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업종별 수출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민관의 소통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한편, 미국의 정치 전환기를 맞아 미·중 갈등이 보다 격화될 가능성에 대응하여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 등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정부 차원은 물론 업종 및 기업 단위에서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